



전형 대상자와 방법의 수정, 개선을 바란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수시 모집의 실태

2002학년도 대입 전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입시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수시 입학 제도를 도입하여 1학기, 2학기 각각 1차례씩 학생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1학기 수시 모집은 2001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학기 수시 모집은 2001년 9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을 정해 실시하고 있는데, 1학기 수시 모집은 74개 대학이, 2학기 수시 모집은 183개 대학이 이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학기 수시 모집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별, 대학별, 학과별 지원률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이 강세이고, 지방 대학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다. 초기에는 수시 모집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 심층 면접 준비 부족, 수능 대비 부담 등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막판에 경쟁률이 높아졌다.

서울대학교는 1학기 수시 모집을 하지 않으나 대부분 수도권외의 주요 사립 대학은 1학기 수시 모집을 하고 있다. 각 대학은 수시 모집을 통하여 우수 학생을 미리 선점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학기 수시 모집은 2학년 말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크게 좌우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외에 면접을 시행하고, 일부 대학은 지필 고사도 시행한다. 자기소개서나 수학기회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학기 수시 모집에서 연세대는 521명(10%), 고려대는 275명(5%), 서강대는 118명(7%), 이화여대는 100명(3%), 한양대는 524(9%), 성균관대는 200명(5%)을 선발했다.

“

수시 모집이 학업 성적 우수자 선발이라면
굳이 정시 모집 외에 이러한 제도가 왜 필요하지 모르겠다.
수시 모집 제도는 정시 모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

1학기 수시 모집의 결과 분석

1학기 수시 모집을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학생부 성적 반영률은 40%에서 1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성적 우수자만이 수시 모집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자들의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학기 수시 모집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심층 면접이 좌우하기 마련이다.

학생부 성적이 앞섰던 수험생 다수가 심층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무더기 탈락 사태를 빚기도 하였다. 심층 면접 결과, 학생부 성적에 의한 합격이 뒤바뀐 경우가 연세대 21%, 이화여대 28%, 고려대 33%, 성균관대 35%, 서강대 49%, 한양대 50%에 이른다고 한다.

학생부 성적이 비슷하더라도 학생들의 학력은 지역별, 교교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세, 지방 약세의 현상이다. 지방이 서울에 비해 학생부 성적이 높은데도 심층 면접의 성적이 낮아 합격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온 것이다.

수시 모집은 대학 입학 선발 기준을 다양화하여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수한 경우를 상정하고 도입한 제도라 할 것이다. 특히 1학기 수시 모집의 경우는 수능시험과 3학년 학생부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2학년 말까지의 성적만으로 뽑게 된다. 따라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3학년 때의 학생부 성적과 다양한 출제로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 시험의 성적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1학기 수시 모집의 문제점

첫째, 1학기 수시 모집의 경우 심층 면접을 통해 조기 입학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정 기준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심층 면접이 종합적 사고력이나 고등 정신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나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수시 모집을 1학기에 실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5월은 신학년 들어서 가장 면학 분위기 조성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수시 모집으로 인하여 학교 내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문제가 많다.

셋째, 1학기 수시 모집 합격 학생들의 합격 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교 3학년은 온종일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생활 패턴의 전부인데 합격한 이들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반 편성을 달리 할 수도 없고, 결석을 묵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수시 모집이 학업 성적 우수자 선발이라면 굳이 정시 모집 외에 이러한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수시 모집 제도는 정시 모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다섯째, 특별 전형과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사회 봉사 활동이나 특기자의 케이스로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별 전형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1학기 수시 모집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수정 · 보완해야 한다

첫째, 1학기 수시 모집의 경우 그 대상자의 폭을 축소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귀국한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등의 자녀 중 특별한 재능이나 특기가 있는 경우에 수시 모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귀국자 자녀에 대한 특례 제도가 있으나 이는 특례 대상자끼리의 경쟁에 의해서 선발한다는 의미에서 그 배경이 다르다. 특례 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되 그 중에서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또 국제적인 과학·기술·음악·미술·체육 등의 각종 경시 대회나 발명 대회 또 우수한 국제적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에 한해 미리 대학 입학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시험에 매달리는 노력을 줄여 줌으로써 해당 학생의 소질과 적성과 특기를 키우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학기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학

생과 똑같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경직된 것으로,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들이 자기의 소질과 특기를 살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의 학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교장의 승인이 있으면 합격한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어학 실력을 위한 학원 수강, 자기 특기를 살리기 위한 산업체에서의 활동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학교 밖에서 공부한 것을 학교 안에서 공부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주장이다.

셋째, 재수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이들은 전년도 학생부 성적과 수능시험, 성적, 심층 면접을 전형 자료로 해야 할 것이다. 1학기 수시 모집에서 일부 대학은 재수생의 응시를 불허하고 있으나 모든 대학이 대학에 재학 중이 아닌 재수생에 한하여 1차 수시 모집의 대상으로 해주자는 것이다. 1점 내외의 차이로 자기가 희망한 대학의 학과에 실패한 경우 다시 1년을 준비하게 하는 것보다 5월중에 엄격한 전형 과정을 통해 대학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겠다.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 길을 터주면 무조건 응시하고 보자는 풍조가 일어나 대혼란이 예상됨으로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따라야 할 것이다. **김진성**

김진성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육부 교육연구정책관,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을 역임하였다. 현재 구정고 교장과 한국교육정책연구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 외 다수가 있다.